

#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관한의견제시의견

(의안번호 제683호)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3. 14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1. 3. 16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1. 3. 26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수정가결

### 2. 제안이유

-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중앙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함.(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1항)
- 제2차 매립기본계획(2001~2010)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지구가 해양수산부에서 미반영지구로 확정될 시 향후 10년동안 동 지구에 대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없어 고성군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함.

### 3. 의견청취 내용

- 마동지구 기본계획 미반영에 대한 반영여부
- 봉동지구 기본계획 미반영에 대한 반영여부
- 고성만지구 기본계획 미반영에 대한 반영여부

### 4. 의견을 듣게 된 경위

-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음.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안

- 본 지구는 고성군관내 1,400ha의 천수답에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인근 안정공단의 공업용수 확보 등 항구적인 한해 대책을 위한 오랜 고성군민의 숙원사업으로
- 매립시 담수호의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가 일부 염려되기는 하나 2001년에 완공 예정으로 시공중인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가동하게 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 사료되며, 또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갈대밭 조성에 의해 담수호의 수질을 간접적으로 정화하게 되어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 현존하는 갈대군락지를 계속하여 보전하여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 하므로써 자연적으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로 형성되어 철새들의 낙원으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이며,
- 또한 담수호 제방을 도로로 활용함으로써 10~20분정도 우회하여야 하는 주민불편 민원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게 됨으로
-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성군의 발전은 물론 환경친화적 남해안 관광지로 새롭게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되어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종합적인 장기개발 계획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 ◎ 봉동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안

- 본 지구는 충무공의 당항포해전 승전지로 당항포관광지와 연계하여 고성군의 장기적 프로젝트 사업으로 경정장 개발의 타당성 용역조사를 완료하여 개발코져 하는 지역으로서 동 지역은 잔잔한 호수와 같은 내안으로 수심이 얕고 연평균 수온이 14℃ 이상으로 사계절 경정정기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적 조건을 갖춘 곳으로서 경정훈련 및 경기장으로 적합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된바 있으며,
- 우리나라의 동·서·남해안 바닷가에는 현재 경정장이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어 지역 균형개발과 국민건강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부각되는 신선하고 새로운 수상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 동 지역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대전, 부산, 울산, 대구 등 대도시와 1일 생활권에 위치하여 수익성 높은 관광 및 스포츠 산업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어 봉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공유수면 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종합적인 장기개발계획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 고성만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안

- 본 지구는 경남개발연구원에서 고성군장기개발계획에 고성만지구를 매립하여 고성읍 배후주거단지 및 산업물류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안을 수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 만의 일부분에 어장이 있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기는 하나 이의 특성을 살려 고성군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고성군은 시가지 대부분이 농지(농업진흥지역)와 접하고 있어 일반토지를 이용하여 주거단지 등을 확보하는데는 도시개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 21세기 고성군의 인구 10만을 수용하는데에 주거·산업용지 확보에 꼭 필요한 계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미래 항구로서의 개발가능성도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고성만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인 장기개발계획 등에 대하여 재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마동지구는 기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제서야 의회의견을 묻는 이유는
- 답 : 10년마다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으나 1차 공유수면매립 기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므로 금번 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문 : 지방의회 의견을 묻는 근거는
- 답 :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 토 론

- 찬성의견 :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안은 원안대로 통과
- 반대의견 : 봉동지구 및 고성만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안은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환경보전 및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

7. 심사결과 : 2001. 3. 26 출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별첨 안과 같은 의견제출  
※ 별첨 : 고성군의회 의견서 3부.

의안번호	제 6 8 3 호
의결년월일	2001. 3. 31. ( 제 85 회 )

의결사항	수정결
------	-----

##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관한의견제시의견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년월일	2001. 3. 17.

# 고성군의회의견서

제 목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

## 【 의 건 】

- 본 지구는 고성군관내 1,400ha의 천수답에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인근 안정공단의 공업용수 확보 등 항구적인 한해 대책을 위한 오랜 고성군민의 숙원사업으로
- 매립시 담수호의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가 일부 염려되기는 하나 2001년에 완공 예정으로 시공중인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가동하게 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 사료되며, 또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갈대밭 조성에 의해 담수호의 수질을 간접적으로 정화하게 되어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 현존하는 갈대군락지를 계속하여 보전하여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로 형성되어 철새들의 낙원으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이며,
- 또한 담수호 제방을 도로로 활용함으로써 10~20분정도 우회하여야 하는 주민불편 민원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성군의 발전은 물론 환경친화적 남해안 관광지로 새롭게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되어 마동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함.

고성군의회의회장 정 재 근

# 고 성 군 의 회 의 건 서

<p>제 목</p>	<p>봉동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p>
<p>【 의 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지구는 충무공의 당항포해전 승전지로 당항포관광지와 연계하여 고성군에서 장기적 프로젝트 사업으로 경정장 개발의 타당성 용역 조사를 완료하여 개발코져 하는 지역으로서 수심이 얕고 연평균 수온이 14℃ 이상으로 사계절 경정경기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적 조건을 갖춘 곳으로서 경정훈련 및 경기장으로 적합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경정훈련원 유치 협의중에 있다고 할지라도</li> <li>○ 선진 일본경정장의 경우를 보면 중앙정부나 우리나라의 도단위의 순수 예산으로 경정장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약 경정장 훈련 장소로 운영하려면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갖추어지지 않은 주위의 여건으로 독자 운영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li> <li>○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시행하는 방법보다 점·사용 허가를 득하여 부유식 방법으로도 시설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경정장설치 운영 사업비가 방대하여 지방비로는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봉동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은 반대의견을 제시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고성군의회의회장 정 재 근</b></p>	

# 고성군의회의견서

제 목	고성만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안에 관한 의견제서의 건
<p data-bbox="228 563 395 606">【 의 견 】</p> <ul data-bbox="260 680 1372 1404" style="list-style-type: none"><li data-bbox="260 680 1372 851">○ 본 지구는 경남개발연구원에서 고성군장기개발계획에 고성만지구를 매립하여 고성읍 배후주거단지 및 산업물류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안을 수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나</li><li data-bbox="260 861 1372 1032">○ 고성만에 형성되어 있는 어장에 손실이 클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개발훼손 보다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정서 및 환경 생태적으로 얻는 이득이 크다고 할 것이며,</li><li data-bbox="260 1042 1372 1159">○ 또한, 산업용지 및 주거시설 등의 기반시설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수심이 낮아 항만으로서 개발이 어렵다고 보아지며,</li><li data-bbox="260 1170 1372 1404">○ 마산, 진주, 사천, 통영 등의 배후도시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개발 사업비가 방대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없고 산업용지 및 도시 주거용지 개발로서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고성만 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은 반대의견을 제시함.</li></ul> <p data-bbox="414 1670 1181 1734">고성군의회의회장 정 재 근</p>	